



HOME    기획    문화

#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 유학경험이해 향상과 초국적 네트워크 확산을 위한 포럼 개최

김수민 | 승인 2022.03.04 10:43

우리대학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에서 「초국가주의 관점에 기초한 유학정책과 교육혁신」이라는 주제가 한국연구재단 중점연구소 과제로 선정되어 유학지에서의 적응 방법과 경험을 나누는 포럼이 지난 9일 개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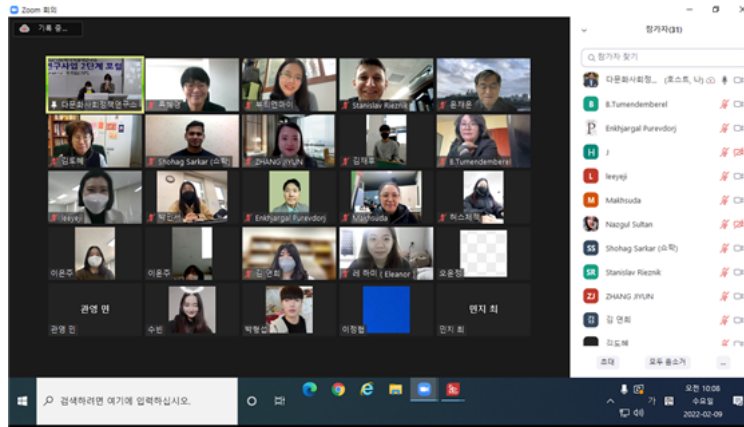
▶ 국내 유학생 제도의 현황과 개선점은?

해당 포럼에 참석한 토론인사들은 모두 한국정부의 유학생에 대한 정책 변화가 한국 유학생들의 초국적 네트워크 확산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고 입을 모았다. 우선 우리대학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 윤재운 소장은 본지와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대학의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의 이번 포럼을 통해 국내 유학생 제도의 현황과 개선점에 대해 공유하고 논의하는 것을 통해 유학교육 및 정책대안을 계획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막슈다쥬레바(영남대 기계공학부 외국인 교수)는 “이중언어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약속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학에서 한국어로 강의와 교재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유학생들은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경우 상호작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대학의 교육은 세계적 수준의 교육으로 인정받고 있어 높은 평가를 받는다”며 “2015년 외국인 유학생 확대 정책인 PEIS를 통해 동남아시아 국가 유학생의 원서접수 장벽 완화는 폭넓은 유학생 확보의 기회가 되었다”고 분석했다.

▶ 한국 유학생들의 관계 네트워크 형성과 유학 개선점이 이슈 되기도...

이번 포럼에 참석한 외국인 유학생들의 경험을 나누는 발표 순서 역시 포럼 참여 구성원들의 큰 공감을 얻기도 했다. 발표에 참여한 부티엔마이(계명대학교 글로벌한국어문화교육학과) 학생은 “베트남에 있을 때는 단순히 문법과 어휘를 외우는 수준으로 공부하지만 했다”며 “한국에 도착해서는 다차원적으로 한국어를 접하며 살아있는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느낌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푸제(대구대학교 도시학과 박사과정) 발표자는 “부티엔마이 학생의 발표에 대해서 공감한다”며 “대구대학교의 국제처 유학생 지원 프로그램이 자신의 유학생생활을 풍부하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발표 당시 “D10비자 졸업생이 직업에 관계없이 노동력이 부족한 부문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확보되었으면 한다”며 “F3비자로 거주자 취업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개선되기를 희망한다”고 해결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번 포럼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온라인 화상회의 Zoom 플랫폼으로 진행되었으나 발표구성원들의 생생하고 경험의 공유와 활발한 참여 구성원들간의 토론의 열기로 뜨거웠다. 이번 포럼의 마무리에서 김도혜(덕성여대 문화인류학과 교수) 좌장은 “국내 유학생이 겪은 한국 생활 경험을 바탕으로 더 섬세한 유학 제도의 개선과 연구기반 및 데이터베이스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수민 ksm147159@hanmail.net

<저작권자 © 두드림,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쇄하기